

제726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5월 24일)

물고기와 게 그림 감상의 즐거움

오다연, 서화Ⅱ실 202-4호 18:00~18:30

물고기와 게, 조개 등 수중 생물을 그린 그림을 어해도魚蟹圖, 또는 어개도魚介圖라 부릅니다. 조선 18세기 말, 장한종張漢宗(1768-1815)이라는 화가는 어해도를 특히 잘 그렸습니다. 그는 유력한 화원 가문인 인동仁洞 장씨張氏 출신으로 정조, 순조대 도화서 화원으로 활약했습니다. 당시 중인들의 흥미로운 행적을 기록한 유재건劉在建(1793-1880)은 『이향견문록』에서 장한종에 대해 “젊었을 때 송어, 잉어, 게, 자라 등을 사서 그 비늘과 등껍질을 자세히 관찰하고 본떠 그렸다. 그림이 완성되면 사람들은 그 정밀함에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라고 했습니다. 전시된 장한종의 그림 4점은 그의 자세하고 정밀한 어해도를 보여줍니다(그림 1). 이 작품들은 현재 액자 상태이지만, 본래는 병풍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한종은 나무와 바위 등 산수 배경을 그릴 때는 김홍도의 화풍을 따랐지만, 물고기와 게, 조개 등은 자신만의 화법을 사용했습니다. 복사꽃 아래에서 헤엄치는 쏘가리나 녹색 뱃살 아래 얼룩무늬가 있는 메기, 돌 사이를 기어 다니는 남생이와 자라, 작은 비늘이 뽁뽁한 붕어, 집게발이 큰 붉은 농게와 방게 등은 외형뿐만 아니라 생태적 특징까지도 사실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이러한 장한종의 사실적인 그림은 사물의 개별성에 관심을 갖고 각 종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19세기 학문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편, 장한종의 후배 화가인 조정규趙廷奎(1791-1860 이후)의 어해도는 감상의 또 다른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장한종의 그림이 어류도감과 같았다면, 조정규의 어해도에서는 오늘날의 아쿠아리움처럼 보다 여유롭게 헤엄치는 수중생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그림 2). 조정규는 대상을 간결하게 묘사하고 폭마다 괴석이나 나무 등을 조화롭게 배치했으며 나머지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수중생물을 그렸습니다. 이와 같은 물고기 그림 병풍은 다산과 풍요, 장수를 상징해, 혼례 등의 의식이나 집안을 꾸미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때이른 더위로 지친 5월, 물고기와 게 그림을 감상하며 더위를 식히는 건 어떠세요.



(왼쪽) 그림 1. 장한종, <소나무와 자라>, 18세기 말~19세기 초, 종이에 엷은 색, 덕수2324

(오른쪽) 그림 2. 조정규, <물고기와 게>, 19세기, 마단에 색, 덕수1306



제726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5월 24일)

경계의 사람들: 아스타나 무덤

이태희, 307호 중앙아시아실 18:00~18:30

투루판(吐魯番, Turfan)은 신장 위구르자치구 동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천산 남로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로, 하서회랑에서 타림분지 오아시스로 들어가는 초입이자 천산산맥이 산길을 넘어 초원지대와의 연결됩니다. 그런 까닭에 종종 유목제국과 중원왕조 사이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한·漢나라는 이 지역에 자리잡은 반농 반목 국가 거사車師를 사이에 두고 흉노와 수 차례 전투를 치렀으며 원제元帝(기원전 48~33 재위) 때는 무기교위戊己校尉를 설치해 병력을 상주시켰습니다. 그 뒤로 무기교위는 설치와 철수가 반복되었으나 위·魏·진·晉까지 이어져 전량前凉 고창군高昌郡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5세기 중반 북위北魏의 공세를 피해 저거무 휘沮渠無諱 등 북량北凉의 잔여 세력이 하서지역 주민을 대거 동반하여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이들 중국계 이주민은 원주민 사회를 잠식하고 독립 국가를 건설했지만 5세기 후반까지 유목제국의 침략과 간섭, 북위로의 내사內徙 문제로 촉발된 내분이 발생하면서 단명 왕조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가 501년 국가麴嘉가 왕위에 오른 뒤로 탄력적인 외교와 왕권을 강화하면서 안정을 찾았고 이후 당唐에 의해 멸망될 때까지 140년간 이어졌습니다. 국씨왕조를 앞의 다른 고창국과 구분하기 위해 ‘국씨고창국’이라고 부릅니다.

국씨고창국은 중국계 이주민이 건설한 일종의 디아스포라 국가로 “나라에 8개 성이 있는 데, 모두 중국인(華人)이 있고(國有八城, 皆有華人.)” “그 풍속과 정령은 중국(華夏)과 거의 같았으며(其風俗政令與華夏略同)” 지배층은 국왕을 중심으로 왕족과 대성大姓(주요 가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북량이 잔여 세력이 정착한 후 몇 차례에 걸친 왕조교체 과정에서 유목제국과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내부 집단 ‘국인國人’은 이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아스타나 무덤은 바로 이들의 무덤입니다. 무덤과 무덤에서 나온 여러 물품은 디아스포라 사회의 지배층으로서, 이질적인 환경과 속에서 200여 년간 독립국을 유지해온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다시 중원왕조의 백성으로 편입된 뒤 150여 년간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제 그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제726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5월 24일)

지도로 보는 조선의 과학기술

김진실, 117호 조선II실 19:00~19:30

조선시대에는 지도 제작 기술이 발전하여 국가와 민간에서 여러 종류의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세계 지도와 외국 지도에는 조선의 세계 인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방 지도는 행정에 이용했고 군사 지도는 지형과 통신 체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제작한 것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실에는 곳곳에 조선의 지도가 걸려있습니다. 하늘의 공간을 그린 천문도부터 조선의 전국 지도와 도별 지도, 한양과 지방의 지도,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실에 걸린 지도들의 하나씩 살펴보면서 조선의 지도 전통과 그 기술의 변화 발전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는 1395년(태조 4)에 처음 돌에 새겨 만들었습니다. 고구려 계통의 천문도로 1687년(숙종 13) 다시 새겨 만들었습니다. 천상열차분야지도란, 하늘의 형상(天象) 즉 천문 현상을 12분야分野로 나누어 차례로 늘어놓은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개국 초기 천명사상을 토대로 왕조의 정통성을 세우고 권위를 높이하고자 만들어진 하늘의 지도입니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는 1402년(태종 2)에 만들어진 세계 지도입니다. 혼일混一은 중국과 오랑캐를 하나로 한다, 강리疆理는 변두리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현재의 세계지도와는 달리 중국이 중심에 가장 크게 표현되어 있고, 그 옆에 한반도 또한 실제보다 크게 표현했습니다. 중국 원나라 지도에 조선과 일본을 덧붙여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국대지도東國大地圖와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는 18-19세기 조선의 지도 제작 기술의 발전을 보여줍니다. 축척을 본격적으로 활용해 만든 동국대지도는 지리학자 정상기(鄭尙驥, 1678~1752)가 만든 역작입니다. 2,200여개에 달하는 지명이 표기되어있고 백두산을 포함한 북부 지방을 처음으로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현재의 독도인 우산도于山島가 분명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동여지도는 1861년 김정호가 목판으로 인출한 전국지도입니다. 우리나라를 남북 120리 간격으로 구분하여 22층으로 나누었습니다. 모두 펼쳐 연결하면 세로 약 6.7m, 가로 약 3.8m의 초대형 지도입니다. 현대의 지도처럼 기호로 정보가 표기되었습니다. 특히 목판으로 인쇄하여 필사과정의 오류를 줄였습니다. 대동여지도 목판에는 수정 흔적도 남아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 제작 전통이 집대성된 최고의 지도입니다.

당삼채와 요삼채

오세은, 309호 중국실 19:00~19:30

청나라 강희제姜熙齊 때의 문헌에 ‘삼채는 시유도자에 다양한 색을 입힌 민무늬 도자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민국시기民國時期 허난(河南)성 뤼양(洛陽) 일대에서 당대唐代的 다색유도자가 발굴되었고 당대 생산된 것으로 당삼채라 불렸습니다. 20세기 초, 일본인들이 랴오닝(遼寧)성 서부지역과 네이멍구(內蒙古)지역의 요대무덤 발굴 시 당삼채와 유사한 다색유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도자는 당삼채와는 다른 요대의 것으로 밝혀져 요삼채로 구별하여 불렸습니다.

당삼채의 기본색은 황, 녹, 백색이고 생활용기, 수호신 등 내세의 안녕과 영혼을 수호하는데 필요한 기형을 제작해 무덤에 매장했습니다. 비록 부장품이지만 현실감 있는 제작으로 그 형태가 매우 사실적이고 화려한 예술적 효과까지 주었습니다. 당대 중기 이후 삼채는 점차 쇠퇴하여 송대宋代는 그 명맥만 유지되었습니다. 삼채 가마의 주요 분포지역은 허난(河南)과 허베이(河北)성이었습니다. 이곳은 훗날 오대五代와 북송(960~1127) 초기 요遼가 빈번하게 침범했던 지역으로 주요 목적은 도공의 약탈이었습니다. 요(916~1125)나라 건국이후, 요나라 사람들은 생활용품으로 주로 도자기와 금은기를 사용했습니다. 다색유도자는 태토가 무르고 일정량의 독소를 포함하고 있어 생활용기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요나라 사람들은 요대 중기까지는 삼채 제작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성종(재위 982~1031) 때 금은제 부장품이 대량으로 도굴되어 나라에서는 부장품 제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계급에 따라 부장하는 종류와 수량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갑옷, 금은기 등의 진귀한 물건과 말을 죽여 부장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도자가 부장품으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요대는 초기부터 저화도 시유도자를 생산했고 백유녹채와 황유녹채 등 이계채 도자로도 제작했습니다. 요대 중기 말엽 도공들은 한족의 영향을 받은 당삼채의 제작기술을 이계채 도자와 접목시켜 자연스럽게 요삼채의 생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요삼채는 거란족의 고유한 문화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목민족인 거란족은 유목민의 생활과 주변의 자연을 기형과 문양으로 삼채에 녹여 내었습니다.







					
저화도도자	백유녹채	황유녹채	백유녹채주전자	모란무늬 접시	주전자

그림 1 요나라 저화도 시유도자